

폐자원 재활용 교육과 기업의 역할

안 기 희(국회 정책연구실 실장)

1.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최근 폐기물을 '폐자원'으로 부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IMF체제를 맞아 폐자원 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는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폐기물을 아직도 자원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환경교육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한 지적이다.

우리들은 기업이 생산해낸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은 백화점이나 슈퍼 또는 상점에서 구입해온다. 대금을 지불해서라도 가지고 싶은것은 플러스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자기가 사용했던 것, 소용이 없는 것은 필요없게 되어 버리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상품은 자기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게 되고 이순간 부터 마이너스의 가치가 된다.

흔히들 이러한 상품을 '폐기물'이라 부른다. 이러한 폐기물 일지라도 폐자원 교환소에 보내지거나 폐자원바자회, 폐품회수 업자에게 거래 될 경우 폐기물에 되지 않고 폐자원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되느냐 또는 폐자원이 되느냐는 그 소유자의 생각에 달려있다. 신문을 400원에 구입하여 30분만 읽으면 필요없게 되어 버리고 싶게된다. 이때부터 폐기물이 발생된다. 가구, 가전 제품과 같이 수년 수십년이 걸려 폐기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이나 아니냐는 그것의 값어치로 결정되고 그 값어치는 개개인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소유한 사람에 따라 폐기물이 되었다가 유가물이 되었다가 한다.<표 1>

〈표 1〉 폐기물과 유가물

| | 폐기물이나 | 유가물이나 |
|-------|----------------------------|--------------------------|
| <보는눈> | 높이평가하는 사람 |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
| <질> | 고품질 | 저품질 |
| <양> | 많다 | 적다 |
| <시간> | 시장가치가 오를 때 가치가 오른다(유가물) | 가치가 내릴 때 가치가 내린다(폐기물) |

때로는 상품의 품질, 경합되는 상품, 대체상품과의 상대적 가치등에 의해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①누구에 의해, ②질적변화, ③양, ④장소, ⑤시기 등에 따라 폐기물이 되거나 폐자원으로 둔갑하므로 인간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

법적측면에서 살펴보면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된 물질'이라고 정의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폐기물이란 '이동가능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버릴의사가 있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질서있는 제거가 일반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다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즉 폐기물이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인간에 해를 끼치는 것, 주로 토지, 하천, 호수, 공기에도 해로운 고형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은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생활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 종류와 성상도 다양화·대량화될 뿐아니라 유해한 중금속물질이나 방사성물질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토양에 축적되므로 생태계의 먹이사슬(food chain)에 농축되어 생명의 생존기반에 큰 위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발전단계에 불 때에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고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폐기물로 인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세계보전 전략으로서 기업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제도확대등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90% 이상의 폐기물을 단순 매립에 의존하는 우리의 폐기물 처리대책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한정된 국토에 매립장은 포화상태다. 이제 우리는 폐기물은 새로운 재활용교육 체제로 자원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폐기물을 자원화, 퇴비화, 사료화 체제로 전면 돌입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함께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금모으기 이전에 자원 모으기로 폐기물을 감량화, 재이용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 폐기물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회수의무까지를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폐자원 재활용 교육의 필요성

UN인간환경회의는 세계적 환경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처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로써 환경교육의 개발을 요청한바 있다.¹⁾ 그후, UNSCO의 트빌리시 회의에서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인류로 하여금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환경의 복잡한 속성들을 이해하게 하며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가치관, 태도, 기능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폐기물에 관한 대상을 적용할 경우 환경교육은 폐기물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해결토록하여, 새로운 폐기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지식, 동기, 기술, 태도의 고양과 책임을 질 환경인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된다. 이러한 폐자원 환경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위단계로서 목표는 대단히 많을 수 있으나 베오그라드 헌장²⁾에 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능력 및 참여로 나누어 요약될수 있다.

- (1) 인식 : 개인과 사회 공공단체들로 하여금 폐기물이 전체환경과 그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을 얻도록 한다.
- (2) 지식 : 개인과 사회 공공단체들로 하여금 전체환경과 폐기물의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인간 개개인과 기업의 확실한 책임의 소재와 그 역할을 파악하도록 한다.
- (3) 태도 : 개인과 사회 공공단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 환경에 대하여 강하게 느끼는 관심, 그리고 폐기물 적정관리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에 적극 참여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 (4) 기능 : 개인과 공공사회 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 관리능력을 위한 기능을 습득하

1)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의 권고96호는 환경위기에 대처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환경교육의 개발을 제안했다.

2) 1975년 베오그라드헌장(The Beograd Charter -A Global Framework Environmental Education, 1975)에 상세히 환경교육의 목표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도록 한다.

(5) 평가능력 : 개인과 공공사회단체로 하여금 폐기물재활용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참여 : 개인과 사회, 기업 그리고 공공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시도록 범국민 폐자원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책임감과 절박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폐자원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자원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지도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 째, 폐자원환경교육은 전생애를 통한 과정이어야 하며,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연령층에 걸쳐 공동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 째, 폐자원교육프로그램은 국가적 자원난과 환경위기를 맞아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하여 이해할 수 있고, 후년에 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연속성과 진행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 째, 이 교육프로그램은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회적·과학적 지식을 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과 생물과학을 연계지어야 한다.

네 째, 이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지역사회 폐기물문제를 연구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교교육과 중복되지 않을 현장학습경험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다섯째, 이 교육프로그램은 개인과 기업의 태도의 형성, 폐기물에 대한 가치의 해명, 비판적 사고, 폐기물문제해결, 그리고 사회변화전략등을 강조한다.

여섯째, 이 재활용교육프로그램은 국가와 지역의 폐기물현장교육 문제를 강조하며,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연계된 폐기물이동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경제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차원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도록 해야한다.

환경교육중에서도 폐기물재활용교육은 학교환경교육보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된 비형식적인 환경교육이다. 이는 제도 밖 교육으로서 교사, 학부모, 정부, 지방공무원, 시민대중, 경제계지도자들, 시민단체대표자 그리고 대중매체 요원들이 교육대상이 된다. 최근 폐자원 활용을 위한 알뜰시장, 바자회, 폐자원모으기, 폐품수집대회등 모두 폐자원 재활용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3. 폐자원 재활용 교육과 기업의 관계

성장의 한계론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그 하나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할 경우 지구의 자원은 분명히 물리적 한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다면 경제성장은 물론, 환경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기업의 생산능력도 한계에 달해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교육과 기업의 관계규명은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지속성장은 환경의 생물권 부양능력이 지속하는 선상에서 가능하다. 우리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선언에서 기업은 환경문제(오염)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³⁾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으로 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인은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련한 실천이 기업원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으로 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자원이 절약되는 형태로 하루빨리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라운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가 실제에 응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모든 과학기술은 그 실용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국가환경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제 사업장 폐기물도 문제지만 생활폐기물도 모두 적정처리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폐기물의 재활용 실태는 아직 자원화에 못 미치고 있는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업은 국가환경선언에서 정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폐자원 재활용교육 지원에 앞장서야 할 전환적인 시점에 와 있다.

국가환경선언에서만 기업의 환경 책무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 환경선언」에도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인의 책임과 의무로 다루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과 기업인은 그간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온 데 대해 책임을 겸허히 자성하고 기업의 경영목표와 이념을 기업활동과 환경보전과 조화로 이루어 가도록 환경보전을 기업의 주요책무의 하나로 수용하여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기업은 국민과의 신뢰감 구축을 통해서만이 기업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며, 또한 하나뿐인 지구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하여 인류의 영구적인 밝은 미래

3) 1992년에 선포된 국가환경선언 환경보전기본원칙 6.참조

로 이룩하는데 기여한다。」라고 기업인 환경선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다음과 같은 기업인 환경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을 대국민 앞에 천명하고 있다.

(1) 기업인의 인식 전환

기업은 환경문제(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 과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갖도록 노력한다. 기업활동의 역점을 환경질적 개선에 두도록 하며 환경관리(환경교육)를 경영목표중 주요항목의 하나로 책정하고 경영의사결정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2) 환경관리체제 개선

기업내 환경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구성원 모두의 참여의지를 계도한다. 관련기관 및 타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보전대책을 보완 강화해 간다.

(3) 환경영향의 사전검토

환경보전에 대한 자체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공장입지 선정에서 부터 생산설비의 설치, 원자재 및 부품의 구입, 제품개발, 그리고 제품의 생산, 유통등 기업활동의 전단계에 있어서 환경오염과 파괴의 예방을 위해 검토와 연구에 충실한다.

(4) 기술 개발

저공해제품의 생산, 폐자원이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한다.

(5) 각계와의 협력 증진

환경정책입안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의 적정한 사용, 폐자원화, 폐기물의 폐기방법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일원으로서 환경보전실천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국제협력 증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정보교류를 확대한다.

이와 같이 기업인 환경선언 및 행동강령에서도 살펴보듯이 IMF체제로 폐기물재활용 문제는 우리정부와 기업의 중대한 책무로 성큼 다가왔다. 현종이 한장은 폐자원이 안되지만 일정량만 모이면 펄프의 재활용 원료가 된다. 우리는 자원빈국이다. 폐기물자원화를 위한 범국민 환경교육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인의 환경교육지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즉 제품의 사전환경영향평가후 문제된 폐기물을 기업스스로 회수해야 할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 이제 대기업 스스로가 외국의 대기업처럼 환경교육장술 소비자에게 스스로 공개 할 때가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매립지와 재활용센터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책무만으로는 한계에 왔다. 폐기물과 기업이 상관 관계가 있는 한 기업이 스스로 앞장서 폐기물대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본의 경우 에코타운을 건원하여 기업의 쓰레기재활용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폐기물 재활용에 접근하는 일이다.

4. 폐자원 교육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우리는 사업장폐기물이던 생활폐기물이던 90%의 단순 매립과 다이옥신등을 배출하는 소각동으로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괴물인 난지도 매립지가 부족해서 영종도 대단위 매립지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2001년이면 쓰레기 대란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이와같은 폐기물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처할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범국민폐기물재활용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재활용 교육은 기업인 환경선언에서도 천명된 바와 같이 기업의 획기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기업시민」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된다.

기업은 인간이 아니므로 시민은 될 수 없으나 인간처럼 의사와 행동을 구비하는 조직체로 생각하자는 뜻이다. 기업과 국가환경 시책에 있어서 시민과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하는 의사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시민에 대한 환경기대가 기업에 대해 여러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의 한동아리로 참여하고 공헌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사회사업, 환경운동, 녹지사업등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기업의 사회적 환경역할을 요구하는 요인

지구의 온난화와 열대우림의 파괴등 환경문제의 악화와 그리고 이와 연계된 심각한 폐기물 처리문제가 기업의 사회적 환경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 거기다 폐기물처리 문제가 이대로 간다면 마침내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이다. 특히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지의 부족과 극심한 님비(NIMBY)현상이 문

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도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나가려고 애써 왔지만 정부의 생산관리 체계나 기업의 경영방침의 결정과정이나 경영관리에서 공헌도 실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소비자 환경단체로부터 기업에 대해 제품에 대한 진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자원, 폐기물 처리역할에 대한 책임을 줄기차게 강조해 오고 있다. 최근 일본 등지에서 기업이 지역에 파고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님비와 핼피(PIMPY)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제안하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이미지를 좋게 할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기업의 사회적 환경공헌의 형태

기업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공헌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다.

(1) 기업의 환경기금 내지 자금지원

지금까지 대기업이 학술, 예술, 문화, 스포츠, 복지, 교육, 환경 또는 지역사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업은 아직 환경연구소, 환경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폐기물 재활용 교육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범국민 폐자원 모으기 운동과 재활용 교육에 기업의 사회적 환경공헌이 있기를 기대한다.

(2) 기업의 환경교육장 협력

기업은 막대한 홍보비로 새로운 제품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폐자원에 앞장서는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 부각이 선결 과제이다. 미국의 「3M사」의 경우 애기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를 제조하는 기업이지만 소비자를 위한 환경교육장과 영화상영관을 공장내에 설치하여 자기회사 제품의 재활용제조 과정을 전국에서 온 시민들에게 견학시킨 후로는 「3M사」가 환경을 해치는 기업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기업도 이제 소비자와 환경인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용 영상프로그램을 공개 상영할 때가 되었으며 자기제품의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 할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내에 폐기물 재활용 센터를 소비자단체 지역주민의 이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 사원의 환경자원 봉사 활동 배려

기업내의 환경동호인 동아리들이 휴가등을 이용 폐자원 수집과 분리수거 재활용센터를 견학해서 자원 봉사할 경우 신분의 능력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 생산활동에 있어서 재활용 배려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활동에 걸쳐 환경을 우선 고려하고 환경·자원·소비자 문제등을 배려해서 자기회사 제품폐기물을 능동적으로 회수 체제로 구축해서 재활용·재이용·재생산토록 한다.

마. 사회 환경교육단체에 시민재활용 교육비 지원

학교환경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재활용 교육과 일반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기회사 제품 폐기물수거운동과 연계될 경우 재활용 교육을 위한 환경교육단체에 기업의 일정액 지원은 바람직하다.

4. 기업(시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과제

기업은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환경자원을 위한 기업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교육에 대한 당면과제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업이 사회적 환경공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최고 경영자 소속하에 환경업무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시민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에 대한 의견이 기껏 기업의 소비자국이나 공해방지구 단위에 머물어서는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은 멀다. 이제 자동차 제조기업은 자동차의 재료로서 30%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뒤에 폐차가 되어 회수할 경우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의 국단위의 문제가 아닌 최고경영자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재활용 환경교육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결단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 째, 기업내지 경영자의 평가기준에 매상고나 이윤의 영업실적외에 새로운 국제장벽으로 등장한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사회적 환경공헌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셋 째, 자기회사 제품이나 생산활동 평가 항목속에 환경, 자원,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영향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넷 째, 기업활동에 환경인 소비자 참가이다. 환경문제를 소비자와 함께 생각하는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기업혁신으로 새로이 내세운다. 기업 홍보비를 환경교육 지원으

로 대체하는 새로운 기대 효과로 창출한다.

다섯째, 기업이 지역환경사업과 환경교육에 참여한다. 기업이 지역환경사업에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참여하여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시민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일이다.

5. 결어 : 공동체 · 공동선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폐기물 관리 문제는 정부 · 기업 · 시민 모두에게 환경공동체 공동선을 추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폐기물 재활용 문제는 정부 · 기업 · 시민이 공동체, 공동선 추구의 새로운 환경윤리관의 확립 문제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체제를 맞아 원자재 수입의 문제가 급증하자 폐기물 재활용 문제는 기업의 새로운 책임문제로 까지 부각되고 있다.

지금 곧 기업의 폐자원 활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헌이나 책임 문제가 기업시민의 최고 경영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 교육에 대한 기업내부에서 조직적, 제도적, 자기혁신과 기업시민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민의 소비자운동, 환경운동과 연계되어 범국민 폐자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환경위기 즉 폐기물 위기문제를 정부 · 기업 · 주민이 환경공동체, 공동선 추구를 위한 환경교육으로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기대한다.